

편집 및 발행인 : 김종덕 · 발행처 :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·지원센터

총괄 : 최나영환 감수 : 길광수 전화번호 : 051-797-4770 · E-mail : chnayoung@kmi.re.kr / jhlee8604@kmi.re.kr

Contents

● 국제물류 통계

- 주요 라스트 마일 배송기업, 대체연료차 도입 확대

● 유럽 물류시장 동향

- Metrans, 폴란드-터키 철도 화물 서비스 개시

● 아세안 물류시장 동향

- Maersk, 인도 물류 인프라 확대

● 미주·중남미 물류시장 동향

- 미, 자국 중심 전기차 공급망 구축 박차
- 미국, 트럭 운전자 근무시간 규제 완화 연장...코로나19
급증 대비

● 공지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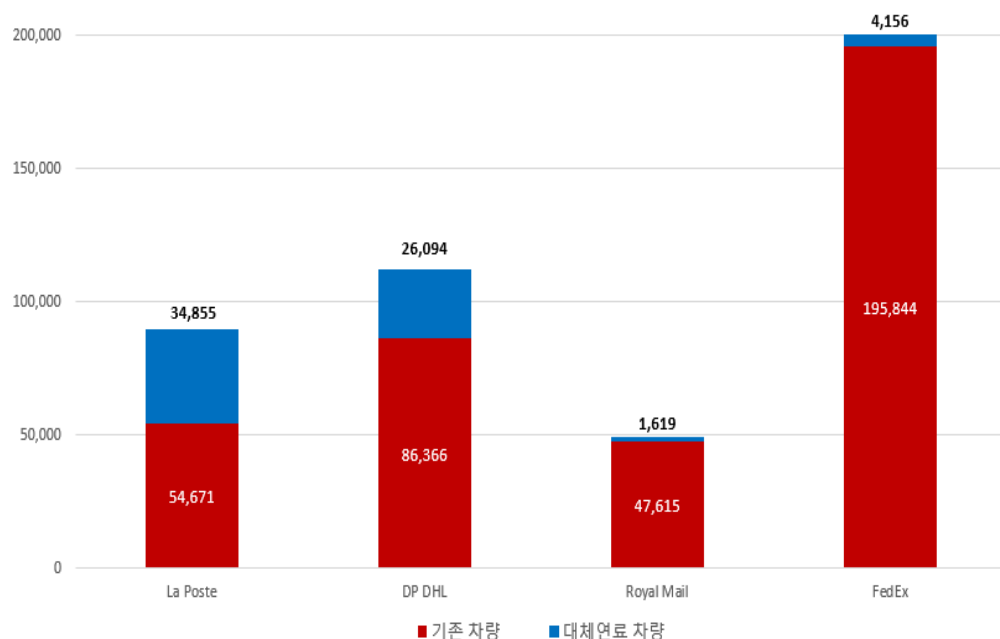
- “국제물류 정보포털”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서비스 안내



주요 라스트 마일 배송기업, 대체연료차 도입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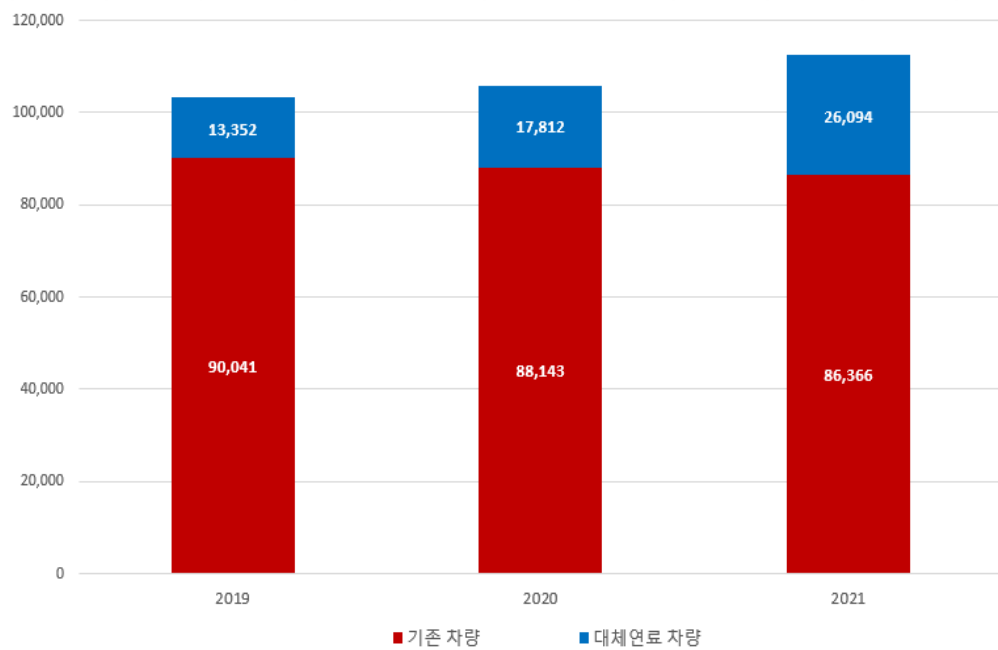
- ▶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, 주요 글로벌 라스트 마일 배송 기업들도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시행하고 있음
 - 라스트 마일 운송 기업들은 다수의 항공기와 차량, 창고 및 기타 기반 시설에서 각기 다른 형태의 에너지를 소비함
 - 이에 상당 수의 글로벌 주요 운송기업들이 ESG(Environment, Social, Governance) 정책의 일환으로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환경 계획을 도입하고 있으며, Net-Zero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
- ▶ 글로벌 라스트 마일 배송기업들의 ESG의 주요 활동 중 하나는 '대체연료(주로 전기, LPG, 하이브리드)' 차량 도입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
 - 먼저 프랑스의 우정사업본부 La Poste는 2021년 기준 전체 운송 차량 8만 9,526대 중 대체연료 차량이 3만 4,855대로 약 38.9%의 활용도를 보여 현재 가장 높은 대체연료 차량 활용 비중을 보여줌
 - 다음으로 독일의 DP DHL의 경우 2019년도 대체연료 운송 차량 비중이 약 12.9%(전체 10만 3,393대, 대체연료 1만 3,352대)에서 2021년도에는 23.2%(전체 11만 2,460대, 대체연료 2만 6,094대)로 2년 사이에 약 10.3% 상승해 La Poste를 빠르게 추격함
 - 영국의 Royal Mail과 미국의 FedEx는 2021년도 기준 각각 전체 운송 차량 4만 9,234대와 20만 대에서 대체연료 차량이 각각 1,619대와 4,156대로 3.3%와 2%의 비중을 차지함

주요 글로벌 라스트 마일 배송 기업 대체연료 차량 이용 현황(2021년도)



자료 : Transport Intelligence, *Electrifying Last Mile Delivery*, 2022.

독일 DP DHL 기업 대체연료 차량 이용 동향(2019년-2021년)

자료 : Transport Intelligence, *Electrifying Last Mile Delivery*, 2022.

Metrans, 폴란드-터키 철도 화물 서비스 개시

- 7월에 발표된 Metrans의 신규 철도 화물 서비스 첫 열차가 9월 3일 슬로바키아를 출발해 이스탄불로 향했으며, 초기에는 주 2회 왕복할 계획임
 - 본 서비스를 통해 탄소 도로 교통량을 줄여 탄소발자국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
 - 서비스 경로는 터키-불가리아-세르비아-헝가리-슬로바키아이며, 현재 슬로바키아의 Dunajska Streda 터미널에서 출발한 첫 열차가 터키로 향하고 있음
- 또한, Metrans는 유럽 노선 네트워크에 발트해 연결 노선을 추가함
 - 폴란드-체코의 새로운 네트워크 서비스가 개통되어 2022년 9월 5일부터 체코의 Ostrava 터미널과 폴란드 그단스크의 DCT 컨테이너 터미널 사이를 매주 3회 순환하며 Katowice에서 15Km 떨어진 Dabrowa Gornicza를 경유할 예정임
 - 그단스크와 오스트라바를 운행하는 열차 길이는 750미터가 적합하며 이 열차는 112개의 컨테이너를 서비스할 수 있음

Dunajska Streda에서 Halkali로의 첫 운행 열차



자료 : www.hhla.de, (검색일 : 2022.9.6.)

참고자료 : www.hhla.de, www.maersk.com, www.offshore-energy.biz, (검색일 : 2022.9.6.)

Maersk, 인도 물류 인프라 확대

- Maersk가 인도물류시장 내 다수의 물류센터를 확보해 물류서비스를 적극 확대하고 있으며, 최근에는 뭄바이 인근 비완디(Bhiwandi)에 5번째 물류센터를 개장함

 - Maersk는 인도 뭄바이 도심으로부터 약 20km 떨어진 비완디에 23,000㎡에 달하는 신규 물류센터 운영에 들어감
 - 동 물류센터는 뭄바이 인근 산업단지 및 자와할랄네루항을 오가는 수출입 물동량을 주로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며, 인도시장 내 Maersk가 운영 중인 5번째 물류센터임
- 특히 인도의 글로벌 타이어 제조기업인 JK Tire & Industries의 물류를 전담할 것으로 예상되며, 이를 기반으로 타이어 물류에 대한 글로벌 서비스도 점차 확대할 계획임

 - JK Tire는 글로벌 20위권의 타이어 제조기업으로 전 세계 105개국에 180개에 달하는 물류거점을 보유하고 있으며, 인도 및 멕시코를 비롯해 총 12개의 생산시설은 운영하고 있음
 - Maersk는 신규 물류센터를 기반으로 인도시장뿐만 아니라 JK Tire의 글로벌 공급망 관리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며, 해상과 육상을 연계한 Warehouse & Distribution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

Maersk가 운영 중인 인도 뭄바이 물류센터



자료 : www.maersk.com, (검색일 : 2022.9.6.)

- Maersk는 2016년 이후 물류기업 인수 및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해 물류부문에 대한 사업 확대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으며, 2030년에는 물류부문이 해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향후 물류인프라를 더욱 늘려갈 것으로 전망됨
 - Maersk는 코로나19 이후 이어지는 대규모 흑자를 통해 2016년 이후 물류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고 있으며, 2030년에는 물류부문이 해운사업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
 - 또한 최근 인수 완료한 LF Logistics는 인도시장 내 7개의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있어, 기존 Maersk가 운영 중인 5개 물류센터를 포함해 총 12개에 달하는 물류센터를 통해 인도 전역에 물류네트워크를 넓혀나갈 것으로 예상됨
 - 이러한 행보로 미루어 볼 때 Maersk의 물류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는 향후 종합물류기업으로의 전환 및 End to End Service 도입 확대를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됨

미, 자국 중심 전기차 공급망 구축 박차

- 지난달 16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인플레이션감축법(Inflation Reduction Act, 이하 IRA)에 서명하며 미국 내 생산되는 전기차에 연간 최대 7,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음
- 이와 더불어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미국 내 신규 반도체 공장에 10년간 150억 달러 투자계획을 발표했음
- 이와 같은 마이크론사의 투자 배경에는 미국 내 반도체 생산기업에 53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반도체법이 있으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마이크론사의 투자를 “미국을 위한 또 다른 큰 승리”라고 표현했음
 - 미국 반도체법에 따른 연방 보조금 혜택을 고려했을 때 마이크론사는 미국 내에서 10년간 약 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음
- 아울러 지난달 29일에는 혼다와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 44억 달러 투자계획을 발표했음
 - 미국 오하이오주에 공장을 세울 예정이며 내년 초 공사를 시작해서 2025년 말 배터리 양산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음
- 이러한 일련의 계획은 전기차 핵심 부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해 안정적인 전기차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미국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

미국, 트럭 운전자 근무시간 규제 완화 연장...코로나19 급증 대비

- 미 정부가 8월 31일 만료 예정인 미국 트럭 운전자 근무 시간(US truck driver hours of services, HOS) 규정에 대한 긴급 면제를 10월 15일까지 연장함
 - 미국 트럭 운전자 근무시간 규정(HOS)은 하루 11시간 이내로 운전시간을 제한하는 규정임
 - 미 연방차량안전청(Federal Motor Carrier Safety Administration, FMCSA)은 2020년 3월 13일 코로나 19와 관련된 국가 비상사태 선언에 대응해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운송을 위해 특정 보급품을 운반하는 트럭 운전사가 11시간 제한을 초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긴급 면제했음
 - 해당 규정 면제는 8월 31일에 만료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10월 15일까지 면제를 연장함
- HOS 규제 완화에 해당하는 물품은 다음과 같음
 - 가축 및 가축 사료
 - 코로나19 검사, 진단 및 치료와 관련된 의료용품 및 장비
 - 코로나19 예방에 관련된 백신, 구성제품, 백신 투여를 위한 보조 용품-키트를 포함한 의료 용품 및 장비
 - 마스크, 장갑, 손소독제, 비누 및 소독제와 같이 지역사회 안전, 위생 및 코로나19의 지역 사회 전파 방지에 필요한 상품 및 장비
 - 유통센터 또는 상점의 긴급 재입고를 위한 식품 및 종이 제품, 식료품
 - 가솔린, 디젤, 디젤 배기 유체, 제트 연료, 에틸알코올 및 프로판, 천연가스 및 난방유를 포함한 난방 연료
- FMCSA에 따르면 HOS 규제 완화는 코로나19에 대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이용되고 있음
 - 이 면제를 이용하는 운송업체 및 운전자는 FMCSA의 전자 포털을 통해 면제 이용 결과에 대한 세부 정보를 매월 말 후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함
 - FMCSA는 성명을 통해 "대통령이 선포한 비상사태가 여전히 유효하며,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지속적인 문제는 공급망에 대한 영향을 포함하여 미국 전역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"고 전함
 - 또한, "전국적인 보고를 통해 트럭 운전자들이 규제 완화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"고 전함
 - FMCSA는 의료용품, 식품 및 연료와 같은 상품의 "비응급" 운송은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전함

➤ HOS 규제 완화는 코로나19의 급증 여부에 따라 10월 이후 연장 여부 또한 결정될 것으로 보임

- HOS 규제 완화는 2020년 대통령 비상 명령이 시행된 이후 여러 차례 연장되었으며, 팬데믹이 진화함에 따라 수정되었음
- 지난 5월 31일 HOS 규제 완화가 3개월 연장된 바 있음
- FMCSA는 수정된 비상 선언 연장이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임
- 또한, 필요에 따라 FMCSA는 비상 선언이 적용되는 상품을 축소하거나 상품 운송과 관련된 제한 사항을 변경하는 등 비상 선언을 수정하고 상황이 정상화될 경우 HOS 규제 완화를 더 빨리 종료할 수 있음

『국제물류 정보포탈』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서비스 안내



친구 추가 방법

1. 카카오톡 메인화면
상단 친구 검색



2. 『국제물류 정보포탈』
검색



3. 친구추가 버튼

